

제4회 광주광역시 창작 희곡 공모전

작품별 세부 심사 내용

■ 작품명 : 사형수는 울었다

1960년대 무허가 판자촌 철거를 놓고 '무등산 타잔'이었던 사형수 박흥숙 사건을 다루었다. 민중의 생존권을 놓고 관과 대립된 아픈 상황을 무리없이 잘 그리고 있다. 주목할 만한 작품이었지만 내면적 치밀함과 극적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극적 구조가 미흡했다.

■ 작품명 : 겨울에는 소녀들이 꿈꾼다

일제하 광주의 여학생들이 독서회 모임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는 소박한 소품이다. 학생독립운동의 현장을 소녀들을 중심으로 극화하려는 의도는 페미니즘 시대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. 이 작품은 순수한 감정, 애국심은 잘 그리고 있으나 지나치게 평이하다.

■ 작품명 : 검은 실

일제강점기 광주방적공장에서 일하는 조선여자들에 대한 비인도적, 노예적 학대에 반항하여 급기야는 독립운동으로 번져간다는 내용이다. 사투리와 노래 가사, 민요가 다채롭게 어울려 사건이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희곡적 구조로 재구성하여 극화시킨다면 장막극으로 공연될 수 있는 작품이겠다.

■ 작품명 : 무진주

지역 유지들이 광주극장을 세우고 이 극장을 중심으로 광주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. 연극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장르이지만 희곡 자체로 작품성, 곧 갈등과 해결, 감동적인 요소가 인물을 통해 두드러지게 꾸릴 필요가 있다. 해설자가 소설 속의 작가 역할을 함으로써 극적 긴장을 이완하고 말았다.

■ 작품명 : 살어리랏다

‘살어리랏다’는 재미있는 희곡이다. 먼 전설같은 도깨비와 토속적 신앙이 결합된 놀이로서의 연극, 유희적 판놀음을 통해 상황 속에 몰입하게 하는 극이다. 대사는 지나칠 정도로 자유분방하다. 말의 꼬리를 잇는 불필요한 대사가 많은 것을 흠으로 지적한다. 소재가 특이한 데 비해 주제의식이 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.

■ 작품명 : 도깨비 대학

광주의 선구적 화가를 등장시켜 이를 무대에 형상화하고 있다. 실재 인물들인 화가 강용운, 배동신, 양수아를 등장시켜 다룬다. 강용운의 추상론과 오지호의 구상론을 대비시킨다. 사과나무는 상징이지만 구체적 대상이며 모두에게 다르게 인식되는 그 ‘무엇’을 이 극은 이끌어가고 있다. 극적 요소가 없이도 재미있게 끌고 가는 솜씨가 눈에 차지만 민주주의와의 연결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.